

회사가 즐거워야 일도 즐겁다

글_ 김현광_ 이니시스 홍보팀장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얼어붙은 요즘 이니시스(대표 이금룡)는 직원이 성장해야 기업도 성장한다는 윈윈(Win-Win) 기업 문화를 강조하며, 직원氣살리기 열풍에 휩싸여 있다. 직원들의 창의력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직원 경쟁력은 곧 기업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직원행복 프로그램 등 운영

이니시스는 분기별로 자사직원을 대상으로 이색행사를 하기로 유명하다. 지난 8월에는 '헬로원데이' 이색분장파티를 신촌에 있는 테마카페 '해열제'에서 가졌다. 이번 가면무도회는 직원氣살리기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직원행복 프로그램으로 '분장콘테스트', '개인기 뽑내기' 등의 알찬 내용으로 진행됐다.



▲ 가면을 쓰고 직원들과 함께 파티를 즐기는 이금룡 대표

이니시스는 파티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들을 위하여 드라큐라와 애니메이션 캐릭터, 뼈어로 등 다양한 종류의 분장을 준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분장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KBS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등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직원이 곧 기업 경쟁력

아울러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에버랜드 자유입장권을 4장씩 선물해 가족들과 오붓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했다. 또 '대표이사를 찾아라'란 이벤트를 개최해 이 대표를 놀이동산에서 찾은 직원들에게 포상을 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 다양한 이색분장을 하고 '분장콘테스트'에 참여한 직원들

이니시스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재산은 직원'이라는 이 대표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교육훈련비 등 직원들에 대한 투자를 전년대비 100%이상 늘렸다. 주 2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영어교육 프로그램과 영어학원 수강비를 지원중이다.

이처럼 이니시스는 올들어 직원氣살리기를 위해 가면무도회를 비롯한 이색행사, 동호회지원, 사원보상제를 비롯한 폭 넓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색행사, 교육비 지원 등은 기업을 위해 사원 스스로 일하도록 하는 기업문화 형성에 커다란 몫을 하고 있다.

오늘도 이니시스 직원들은 회사가 즐거워야 일도 즐겁다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 오픈하는 e마켓플레이스 사이트 온켓(www.onket.com)의 성공적 런칭을 위해 노력중이다. 